

코로나19 장기화에 동네학원 ‘휘청’

원생 발길 감소하며 월 매출 전년비 반토막
초등 저학년 대상 예체능·보습학원 더 타격
교습소 “학원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힘겨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학원으로 몰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학원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큼니다.”

제주에서 30년째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신종플루, 메르스 등 수차례의 감염병 사태를 겪었지만 학원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이라고 했다. A씨가 정부 권고에 따라 2월 25일부터 2주간 휴원한 후 다시 문을 열었을 때 학원을 찾은 원생 수는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이후 A씨

는 제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휴원과 재개원을 반복하는 일상을 보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생 수와 월 매출은 이전보다 60%까지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예체능, 개인 교습소 등 ‘동네 학원’들은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로 확산 시기도 꼽았다.

매년 2월은 개학을 앞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학원들이 열을 올리는 시기이다. 제주에서는 2월 20일 첫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 잇따라 추가 확진이 발생했는데 하필 모집 시기와 겹쳤다.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

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신규 학생 모집은 엄두도 못냈다고 한다.

대형 입시학원이나 스타 강사가 소속된 학원들은 온라인 수업을 시도하는 등 틈새를 공략할 수 있지만 소규모 영세 학원들은 그럴 여력마저 없었다. A씨는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인 예체능 과목 등 입시와 거리가 먼 학원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고 토로했다.

수업은 크게 줄었지만 건물 임대료, 인건비, 차량 유류비 등 고정 지출은 꼬박꼬박 나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몇 개월 지를 미리 등록해 둔 원생들에게는 학원에 못 나온 일수만큼 수강료를 다시 돌려주고 있다.

제주에서 1인 영어 교습소를 운영 중인 B씨는 줄어든 소득보다도 코로나 사태 이후 학원에 대한 불편

한 시선 때문에 더 힘들다고 했다. B씨는 “언론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학원이 방역에 취약하다는 등 (학원 입장에서) 역올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다”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방역활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지자체 합동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5일 제주도학원연합회에 따르면 도학원연합회에 가입한 500여개의 학원 중 코로나 여파로 70%의 학원이 휴원·재개원을 반복했다. 평균 월 매출은 30~40% 줄었다.

도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생, 초등 저학년이 다니는 학원 피해가 크다”며 “주로 1년 단위로 임대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폐업한 학원은 거의 없지만,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폐업하는 학원도 속속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탑승 제한 기사 승차거부 가능… 내일부터 항공사로 확대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비행기 탑승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비행기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택시와 버스 등 각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사업 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어 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의무화 조치도 27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조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식기자 ik012@ihalla.com

보행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바닥신호등’

서귀포시 4곳에 시범설치
‘스몸비족’ 사고예방 기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바닥신호등이 설치된다.

서귀포시는 25일 동홍초등학교 앞 등 지역 내 4곳에 어린이 및 ‘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을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바닥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 동홍초 외에 서귀북초등학교 앞, 서귀포의료원 입구(일주동로), 열린병원 앞 등 이다.

» 사진

‘스몸비족’이란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몰입해 도로를 걷는 사람을 일컫는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사고의 60%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발생하며, 이 중 10~2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길을 걸을 경우 일반 보행자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이 76% 가량 높다는 분석도 있다.

서귀포시는 2019년에 재난안전 교부세 3억원을 확보,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 설치된 바닥신호등에 대한 효과·안전성 등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효과를 분석, 초등학교 앞 등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영종기자 yihyeon@ihalla.com

보조기기 지원 신청 접수

제주시는 거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신청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이다. 이상민기자



메밀밭과 관광객 25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한 메밀밭 주변을 걸으며 제주의 봄을 만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산 등반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도, 출입시 발열체크·사전 예약제 등 운영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한라산 등반객에 대한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산철쭉이 5월 하순부터 6월까지 개화 절정을 맞으면서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탐방안내소, 산악박물관 등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방역과 환경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탐방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생활 방역체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탐방안내소, 산악박물관, 야영장 등 시설물의 개방

은 6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통해 37.5℃ 이상 발열자나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할 수 없다. 입장 시에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관람 시에는 2m 거리두기를 유지해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

산악박물관 같은 실내공간의 경우, 수용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관람 인원이 제한된다. 관음사 야영장도 50%만 개방한다. 참여 프로그램과 탐방해설의 경우도 사전 예약제를 통해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10명 이내로 제한, 운영된다. 백금탁기자

제주여행 유학생 모녀
코로나 확진 처벌 청원
청와대 “성숙한 의식 필요”

청와대가 코로나 증세에도 제주를 여행했다가 이후 확진된 미국 유학생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 “코로나 증세가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5일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 3월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유학생이 같은 달 20일부터 가족과 제주여행을 한 뒤 나흘 뒤 김포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가격리를 무시한 유학생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청원했다. 청와대는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날 답변을 내놨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제주 도청
한화 Q-CELL

네이버 검색창에 '나눔에너지'를 입력 해주세요.

제주도 로컬 태양광 강소기업 **나눔에너지**
제주에너지공사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 **3년 연속 선정**

2020년 5월 29일까지 설치 신청 고객 모집 중!
3kW 설치 자부담금 220만5천원 + 하자보증 8년 + 48시간내 A/S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혜택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 신상품 출시!** 하자 이행 기간 5년

SMP와 REC 판매가격 하락 추세로 사업이 고민되시는 신규 사업주님들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기본형	고급형	프리미엄형
1kW 시공단가 107만원 부터 ~	1kW 시공단가 112만원 부터~	1kW 시공단가 117만원 부터~

2020. 04 3년 연속 제주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2019. 06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큐셀(Q-CELL) 제주도 큐파트너
2019. 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02 미국 Pingo Solar 와 기술 협약 체결
나눔에너지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745-0420 FAX 070-8812-0420